

## “햇빛연금’ 덕 많이 봤는데”... 잦은 비에 지급액 줄어

신안 태양광발전 이익 현금 지급 주민 소득증대·인구증가 이끌어 일조량 25% 감소·발전량 23% ↓ 1분기 연금 인당 2~7만원씩 줄어 “설비확충 유도... 발전량 늘릴 것”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예상치 못한 난 기류를 만났다. 지난 겨울부터 잦은 비로 전남지역 평균 일조량이 25% 감소하면서 태양광 발전량도 덩달아 줄어 햇빛연금 수당 지급액이 줄어든 것.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안군에서 시행 중이다.

햇빛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면서 지역민들은 군비 보조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용량 확충과 태양광 사업자의 소규모 용량 발전시설 투자 유치를 통한 발전량을 늘리는 등 햇빛연금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 일조량 25% 감소로 연금 줄어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1인당 기본소득 50만원 보장을 내세우며 2021년 4월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10월까지 1만524명에게 10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 햇빛연금은 태양광시설 민간사업자와 신안군협동조합이 계약을 맺어 분

기별 1회 지급한다. 태양광발전소에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더 많은 현금을 받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연간 최대 169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에는 14개 읍·면 가운데 안좌도 288MW, 자라도 24MW, 지도 114MW, 사육도 51MW, 임자도99MW 등 5곳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총 발전량은 126GWh로 지난해 1분기 163GWh 대비 23% 감소했다. 발전량을 토대로 주민에게 지급되는 햇빛연금도 당초 1인당 최대 60만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54만원으로 6만원 감소되는 등 지역별로 2~7만원가량 지급액이 줄었다.

예년과 달리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가 연금액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남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5% 감소했다. 2월에는 비가 15일이나 내리는 등 일조량 부족이 태양광 발전량 저하로 직결됐다.

태양광 발전량 감소에 따른 햇빛연금 지급액 축소에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도읍 주민 A씨 “평소 1인당 24만원의 햇빛연금을 받아오다 올 1분기에는 갑



**민주역사 골든벨** 목포정명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8일 교내 정명관에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주제로 열린 찾아가는 민주역사 골든벨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제를 풀며 5·18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남서부보훈지청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관련기사 5면 **나건호 기자**

작스레 17만원으로 7만원 줄었다”며 “한 때 햇빛연금을 받기 위해 외지인들이 신안에 전입해 정착하기까지 했다. 잦은 비, 일조량 부족으로 발전용량이 줄어들면서 급변하는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됐다. 군비 보조를 통한 햇빛연금 정상 지급 등 군민과 지자체 모두가 합심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기상 변화에 따른 햇빛연금 지급액 축소를 수긍하는 목소리도 더러 있다.

임자면 주민 B씨는 “태양광 시설이 고장났는데도 방치해 발전량이 떨어졌다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연금 감소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 ● 햇빛연금, 소득·인구 증가 견인

신안군의 햇빛연금 지급은 주민 소득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이끄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신안군은 1983년 11만8000명이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4년 소폭 증가한 후 재차 감소해 지난해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햇빛연금을 지급받는 일부 지역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좌도의 경우 햇빛연금을 수령하기 전보다 184명이 증가했고 지도읍은 70명이 늘었다. 학생 인구 감소로 휴교 중이던 자라도 자라분교도 햇빛연금 지급 이후 폐교를 면했다. **2면에 계속 조진용 기자**

## 광주시,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복지등기 서비스

### 자립기관·전남우정청과 업무협약 맞춤형 지원사업·사각지대 발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8일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전남지방우정청과 ‘자립준비청년 복지등

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성장·자립·동행’이라는 3가지 방향에 맞춰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등기 우편사

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자립준비청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광주에 주소지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관련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한다.

또 집배원은 △해당 주소지 실거주 여

부 △집 주변 생활환경(안전·위생) △경제적 상태와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거주자와 질의·응답(관찰)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회신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된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우정사업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나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6만8324가구 배달, 1만6561가구(24.2%) 복지혜택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한발 먼저 찾아가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전남지방우정청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